

문제해결적 집단상담이 집단따돌림 가해청소년과 피해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

이 영 선[†] 권 정 혜 이 순 목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학급에서 집단따돌림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지명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에 대한 문제해결적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총 39명의 피험자를 치료군과 통제군으로 층화표집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집단상담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문제해결적 집단상담은 총 8 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친밀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대인관계 양상 및 자신과 상대방의 차이를 알도록 하였으며, 중반에는 문제해결훈련을 실시하고 방어자로서 집단따돌림 상황에 처했을 때의 대처방법을 생각하도록 하였다. 후반에는 문제해결단계를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의사소통훈련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피해집단과 가해집단을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F값과 함께 효과크기를 제시하고 내용적 해석을 하였다. 피해집단의 경우, 치료군이 통제군에 비해 또래에 의해 피해자로 지명된 빈도와 자기보고한 피해횟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문제상황에서 주장반응과 함께 공격적인 반응이 함께 증가하였고, 우울불안 위축 비행 공격성 등 정서 및 행동문제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가해집단의 경우, 치료군이 통제군에 비해 가해자로 지명된 빈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자기보고한 가해횟수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문제상황에서 상대의 행동을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과 철수반응이 감소한 반면 주장반응과 공격반응이 함께 증가하였다. 아울러, 우울불안, 미성숙, 비행, 공격성 등 주관적인 고통과 행동문제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집단따돌림, 또래지명, 문제해결적 집단상담, 사회정보처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영선 / KAIST 경영대학 학생상담실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207-43
Tel : 02-958-3268 / E-mail : psypia@yahoo.co.kr

집단따돌림이란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그가 속한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언어적·신체적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구본용, 1997), 학교라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누구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일상화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연구(2000)에 의하면,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실행에 옮긴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일반 학생들이 30.5%인 것에 비해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의 49.1%, 가해학생의 49.3%, 피해 겸 가해학생의 57.7%가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실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집단따돌림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집단따돌림과 관련해서 외국의 경우 다양한 개입과 그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Baldry & Farrington, 200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3년도부터 Olweus가 주축이 되어 노르웨이 전역에서 집단따돌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법적 제재를 위한 학교회의, 교실규칙 세우기, 부모를 위한 조언 등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의 집단따돌림 캠페인이 실시되었다(Olweus, 1993). 1980년대 영국에서는 anti-bullying project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주로 인지능력에 기초한 프로그램이었으며 인지와 사회기술이 더 잘 발달된 고학년에게 더 효과적이었다(Smith & Sharp, 1994). 북미에서는 공격적인 아동에게 그들 행동의 부정적인 결과를 알려주고 폭력적인 행동을 통제하고 감소시키도록 훈련하는 인지행동적 접근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Pepler & Rubin, 1991), 이는 미국과 네덜란드에 채택되어 실시되고 있다(Dodge, 2001; Winkel and

Baldry, 1997).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따돌림 개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재영(1999)은 집단따돌림의 피해를 당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친해지기, 자기인식, 문제해결, 마무리의 4단계로 구성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사회적 회피감소, 대인관계 편안함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었다. 고혜영(2000)은 집단따돌림의 피해를 당한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해결과정 단계에 사회기술훈련과 자아존중감 향상 훈련을 강화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집단따돌림 피해 중학생의 사회기술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으나, 실질적인 또래로부터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감소시키는데는 효과가 없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집단따돌림과 관련된 개입은 주로 따돌림 피해자에 대한 개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문제해결과정을 익히는 등 인지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다양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배양하기보다 구체적인 사회기술훈련이나 자존감 향상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집단따돌림은 학교 및 또래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역동적인 현상이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힘의 불균형을 특징으로 한다(Olweus, 1994). 집단따돌림이 단순 폭력이나 공격적인 행동과 다른 점은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해로운 행동을 반복적으로 같은 아동에게 한다는 점이다. 즉, 공격하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일관성있게 적대적인 태도로 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격행동을 당하는 사람은 일관성있게 피해를 당하는 경향이 있다(Perry, Kusel, & Perry., 1988). 이러한 집단따돌림의 체계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Pierce

와 Cohen(1995)은 집단따돌림을 개별적인 참여자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가해자-피해자 dyad를 하나의 분석단위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해자-피해자 dyad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인 요인들(예: 또래집단, 가족과 같은 다른 사회체계, 학교와 같은 물리적 환경, 시간)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이 가해자-피해자 관계의 발달과 유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집단따돌림의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개입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키고 힘의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래를 따돌리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사회인지적 영역의 미성숙, 특히 도덕성과 타인에 대한 조망수용과 공감 능력의 부족 등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가 될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한중철, 김인경, 2000), 상황에 대한 귀인을 피해자에게 하는 경향이 있다(Graham & Juvonen, 1998). 아울러 사회정보처리과정에서 편향(bias)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Crick & Dodge(1994)는 공격적인 아동은 확실한 환경적 단서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단서들을 피하려고 해서 우호적인 행동을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혹은 단서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몇 개 안되는 적대적인 반응을 생성해내며 공격적이지 않은 아동들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더 좋은 것으로 평가하거나 모호한 자극에 대해 적대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 최옥임의 연구(2001)에서도 가해자는 또래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친사회적 혹은 따돌림과 관련없는 것으로 귀인하기보다 따돌림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나 이미 따돌림을 받

고 있는 상황으로 귀인하고, 따돌림과 관련된 반응을 더 많이 탐색하였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따돌림과 관련된 자기 효능감이 높았으며, 따돌림 행동을 한 후에 대한 결과가 자신에게 더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성향이 있는 등 가해자의 사회정보처리 편향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편향된 보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Hymel, Bowker, & Woody, 1993; Lochman, 1987). 경쟁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공격성을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더 공격적인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격적인 사람은 또래들이 실제로 자신이 행동한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것이라고 믿으며, 스스로도 남들이 보는 것보다 자신을 덜 공격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지각뿐만이 아니라 또래의 지각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Pierce & Cohen, 1995). 이러한 가해자의 적대적인 귀인 편향과 자신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같은 인지적 편향이 공격적인 행동을 유지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Crick & Dodge, 1994). 따라서, 이러한 인지적 편향에 대한 개입이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과 각성을 높이고 공격적인 행동 및 따돌림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집단따돌림의 피해자들은 신체적 외모의 부정적 특징에서부터 인지적, 정서적 발달이 미숙하거나 사회적 관계 유지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Asher, 1990). Olweus(1993)는 따돌림 피해자를 불안하고 복종적 반응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기술했으며, 관찰을 통해 본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의 행동과 태도는 그들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 불안정하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수동적 피해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며, 이들은 신체적 힘이 약하고 폭력에 대해 대응력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아울러, 주장적 행동을 나타내지 않는다(Schwartz, 2000).

집단 따돌림에 관여하는 가해 및 피해 집단 모두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여 신체적 힘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거나 미성숙한 태도에 더 의존하고 있어, 이로 인해 문제해결 상황에서 공격적이거나 폭력적 행동 수단에 더 자주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한중철, 김인경, 2000).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집단따돌림에 개입된 학생들에게 사회적 관계에서 상황과 상대에 대한 내적 단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수용하며 사회적인 단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을 산출해 대처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문제해결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에 소재한 K중학교 1학년 391명과 경기도에 소재한 B중학교 2학년 563명에게 한국형 변형 또래지명 검사(K-MPNI)를 실시하였다. 또래가 지명한 가해 및 피해 점수가 상위

표 1. 인구통계학적 변인(단위: 명)

항목	변수	상담집단	통제집단	전체
학년	1학년	12	8	20
	2학년	8	11	19
성별	남자	9	7	16
	여자	11	12	23
따돌림형태	가해	8	11	19
	피해	12	8	20
전체		20	19	39

10%인 학생들을 선발한 후,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에 대한 반구조화된 면담도구인 K-SADS-PL을 실시해 심각한 정신병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제외하고 집단상담에 참가하기로 동의한 학생 24명(가해아동 12명, 피해아동 12명)을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집단상담에 4회기이상 참여하지 않은 4명을 제외하고 실제 자료분석은 20명(가해아동 8명, 피해아동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집단상담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상담집단과 같은 학년의 비슷한 정도로 가해, 피해 지명을 받은 학생들을 층화표집하여 대기자 집단 19명(가해아동 11명, 피해아동 8명)을 통제집단으로 분석하였다.

측정도구

한국형 변형 또래지명 설문지

Perry 등(1988)이 제작한 또래지명 설문지(Peer Nomination Inventory)와 국내 연구자료가우디(1999)를 기초로 김영신, 고윤주, 노주선(2000)이 한국 실정에 맞도록 제작한 한국형 변형 또래지명 설문지 (Korean-Modified Peer Nomination Inventory; K-MPNI)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특정 행동에 적합한 같은 반 친구의 이름을 묻는 내용으로서 따돌림이나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와 강압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 및 가해 경우의 이름을 적게 되어 있다. 총 28문항으로 가해 6문항, 소외형 피해 3문항, 언어폭력형 피해 3문항, 신체폭력형 피해 2문항, 강압형 피해 3문항, 그 외 대상 학생들에게 조사의 목적이나 결과를 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고려한 filler 문항 11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설문지는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객관적으로 선별할 수 있게 해주며, 익명으로 시행하여 연구 대상의 답변이 안전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답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김영신, 고윤주, 노주선(2000)의 연구에서 K-MPNI의 신뢰도는 신체폭력형 피해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내적일관성의 신뢰도는 .90에서 .94로 나타났으며, 신체폭력형 피해 2문항의 내적일관성의 신뢰도는 .63이었다.

피해 및 가해 횟수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피해 및 가해정도를 알기 위해 지난 일주일간 자신이 집단따돌림을 당한 피해횟수와 가해 횟수를 보고하게 하였다.

사회정보처리과정

사회정보처리과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Quiggle, Garber, Panak, 그리고 Dodge(1992)의 연구에서 사용된 SIPI(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terviewed)를 이원혜(1998)가 번안하여, 우리 사정에 맞도록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인 자극 유발 상황(provocation)과 또래 집단에 가입(entry)이 거부당하는 상황을 각 2가지씩, 총 4장면으로

제시하고, 각 장면마다 사회정보처리과정의 단계를 측정하며,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가) 단서해석의 단계: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편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도가 고의적인 것인지, 상대방의 행동에 적대적 감정이나 생각이 담겨있는지에 대해 각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한다.

나) 반응 탐색의 단계: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고, 그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반응을 선택하도록 한다. 피해자의 응답은 Quiggle 등(1992)의 연구를 근거로 공격반응, 주장적 반응, 철수적 반응 등이 포함되며 각 반응의 빈도수를 계산하였다.

다) 반응 평가 및 결정단계: 반응평가 및 결정단계는 문제 상황마다 주장과 설득 유형, 공격적 유형, 철수적 유형의 세 가지 반응을 제시한 후 각 반응을 도덕적 차원, 감정적 차원, 관계적 차원, 도구적 차원에서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한다.

라) 행동실연 단계: 행동실연 단계는 문제상황마다 제시된 반응을 피험자가 할 가능성에 대해 4점 척도로 평정한다.

이원혜(1998)의 연구에서 자극 유발상황과 집단에 가입이 거부된 상황에서 정보처리과정에 대한 내적일관성의 신뢰도는 각각 .74로 나타났다.

K-YSR

K-YSR은 Achenbach (1991)가 개발한 Youth Self Report-Child Behavior Check List를 오경자 홍강의, 이해련(1997)이 한국형으로 번안하고 표준화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 집중문제, 비행, 공격성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

어 있고, 전체 문제행동증후군을 합산한 것을 총문제행동 점수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불안, 미성숙, 위축, 비행, 공격성의 하위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하위 척도의 내적 일관성의 신뢰도는 .63에서 .85로 나타났다.

절차

본 연구의 문제해결적 집단상담은 총 8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 10월 3일부터 2001년 12월 6일까지 서울에 소재한 K중학교와 경기도에 소재한 B중학교에서 주 1회 90분씩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가 집단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대학원에서 임상심리를 전공한 대학원생 2명이 보조치료자로 참여하여 조별 활동을 운영하였다. 집단상담에 참여한 보조치료자들은 집단상담의 개발 과정에서부터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자와 지속적으로 집단따돌림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프로그램의 매 회기가 끝나면 1시간씩 사례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집단 구성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문제해결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성내용

문제해결적 집단상담의 목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신과 타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며, 대인관계 문제해결 능력을 익혀 집단따돌림에 개입된 청소년들이 보일 수 있는 사회정보처리에서의 오류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문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고통을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집단따돌림 현상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집단상담 초반에는 자기개방과

협동이 필요한 게임을 통해 정서적, 신체적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하고 소외체험을 통해 집단따돌림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신과 상대방의 차이점 및 유사점, 자신의 대인관계 양상 및 갈등해결전략의 특징을 탐색함으로써 대인관계와 관련된 자기인식을 높이도록 하였다. 집단상담 중반에는 Spivack과 Platt 및 Shure(1976)가 제시한 대인관계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집단따돌림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해결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학급에서 자신과 관련없는 집단따돌림 상황이 벌어질 때 방어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집단상담의 후반에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기주장을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게 하였다.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결 과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0.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시하였다. 집단 구성원이 구성개념이 다른 집단따돌림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집단간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바, 자료분석을 피해집단과 가해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통제군과 비교하여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피해자 및 가해자로 또래가 지명한 빈도와 자기 보고한 피해 및 가해 횟수는 사전측정치를 공변수(covariate)로 하여 처치효과를 알아보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

표 2. 문제해결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내용

1회기	프로그램 및 자기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소개 및 자기소개하기 - 집단규칙 정하기 및 서약서 작성하기 - 인생곡선 그리기 및 발표하기
2회기	친밀감 형성 및 소외 체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인 친밀감 및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단체 게임 - 소외체험 :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집단원 중 한명을 게임에 참가하지 못하게 함. 이를 돌아가면서 모든 집단원들이 체험 - 소외체험에 대한 의견 나누기
3회기	서로의 차이 및 친구관계 인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의 장단점 및 특성에 대해 조별로 나누어 작성하여 발표하기 - 자신의 대인관계 망을 그려보고 대인관계 탐색하기
4회기	문제해결 1: 감정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카드를 사용해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 명명하고 특정 감정이 생길 때의 상황, 그 때 경험하는 신체반응, 생각, 대처방식 등에 대해 작성하기 - 집단따돌림과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고 그때 경험하는 감정 및 신체반응, 사고 등을 인식하기
5회기	문제해결 2: 갈등해결방식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느낀 감정, 사고, 대처방법 토론 - 자신의 갈등해결양식 찾기
6회기	문제해결 3: 문제해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 4단계 설명 - 갈등상황에 문제해결 4단계 적용하기
7회기	문제해결 4: 의사소통기술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방법 배우기(I-Message) - 문제해결단계와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한 역할극하기
8회기	프로그램 정리 및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변화된 모습 찾기 - 버리고 싶은 특성을 쓰고 버리기

구와 같이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에서 처치 효과 또는 집단간 차이를 검증할 때 사전 사후 차이점수(gain score)에 대해서 집단간 t검증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Huck과 McLean(1975)는 사전점수를 공변수로 하여 조정된 사후점수를 가지고 집단간 비교를 하는 ANCOVA를 권한다. 그 이유는 ANCOVA에서는 차이점수 방식에서 제공하는 통계적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만 차이점수 방식은 그렇지 못하며, 극히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ANCOVA에서 통계

검증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사회정보처리선행 연구(Quiggle, Garber, Panak, & Dodge, 1992; 이원혜, 1998)에 따라 각 단계별로 다변량 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하였다. 정서 및 행동에 대한 변화와 관련해서는 표 3을 보면, 하위 요인간의 상관관계가 .40~.69로 요인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바, 다변량 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통계검증에서 F 값은 물론 효과크기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F 값은 표본크기의

함수이고 효과크기는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표이다. 따라서 F값이 유의하지 않아도 효과크기가 유의하면 내용적 해석의 대상으로 한다. 실험연구에서 효과크기의 지수로서는 η^2 , ω^2 , f , d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SPSS에서 제공되는 η^2 (변산원이 복수일 경우 partial η^2 로 부르기도 함)를 제시하기로 한다.

이 η^2 는 회귀분석에서의 R^2 와 같은 개념으로서, '집단구분'이라는 예측변수가 결과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이다. 해석을 위한 크기는 아래와 같다.

작은 효과: .01

중간 효과: .06

큰 효과 : .15

이는 Cohen(1977)이 η^2 과 거의 동일한 ω^2 의 해석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 해석기준을 사용함으로써 η^2 에 따른 해석을 보다 보수적으로 해주고, 불필요하게 호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보다 신중한 해석을 위해 중간크기 또는 그에 가까운 정도의 효과에 대해서만 해석하기로 한다. Keppel (1991)도 “중간크기의 효과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의미있고, 분명코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효과크기를

표 3. 아동의 정서 및 행동의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 (N=39)

	위축	우울불안	미성숙	비행	공격성
위축					
우울불안	.65**				
미성숙	.41*	.65**			
비행	.58**	.48**	.49**		
공격성	.49**	.55**	.40*	.69**	

* p<.05, ** p<.01

참조하는 추세는 영미권 학술지에서는 '90년대 중반 이래로 정착되어 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예: 백혜정, 이순목, 2004).

피해집단에 대한 연구

피해 지명 빈도

집단간 처치에 따른 피해 지명 빈도에서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표 4를 살펴보면, 두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 17)=1.11, p>.05$. 그러나, 효과의 크기인 η^2 이 .06으로 집단 간 차이가 중간 크기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문제해결적 집단 상담을 받은 피해청소년들이 통제군에 비해 사후에 집단따돌림의 피해자라고 지명받은 빈도가 의미있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횟수

표 4를 보면, 치료군이 통제군에 비해 집단 따돌림을 당한 횟수의 효과크기가 .19로 사후에 집단따돌림을 당한 횟수가 의미있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정보처리과정

피해집단의 경우, 사회정보처리과정에서 단서해석단계, 반응탐색단계, 반응평가단계, 행동실연단계의 사전측정치를 공변수로 하여 다변량 공분산분석을 실시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효과크기인 η^2 는 반응평가단계를 제외하고 큰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바, 각 척도별로 공분산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집단상담을 받은 피해집단이 단서해석단계에서 문제상황을 자기 자신이나 전반적인 상황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감소하였다. 상대방의 의도가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표 4. 피해집단을 대상으로 사전평가를 공변수로 한 두 집단 비교

종속변인	치료군(N=12)		통제군(N=8)		F	partial η^2	observed power ^c
	사전평가 M(SD)	사후평가 M(SD)	사전평가 M(SD)	사후평가 M(SD)			
피해지명 ^a	15.82(9.41)	10.82(6.34)	11.00(4.96)	11.09(7.59)	1.11	.06	.17
피해횟수 ^a	.83(1.75)	.18(.60)	.75(1.75)	.50(1.41)	1.31	.09	.19
사회정보처리^b							
단서해석단계	wilks' Lambda		.84		1.39	.16	.25
적의	21.58(3.82)	20.50(4.12)	21.75(6.02)	20.00(4.66)	.61	.04	.11
귀인	8.67(2.39)	8.33(3.42)	6.88(3.23)	9.13(2.95)	1.02	.06	.16
반응탐색단계	wilks' Lambda		.83		.88	.17	.19
주장반응	3.50(2.61)	3.08(1.78)	2.37(3.99)	3.13(4.09)	1.05	.07	.16
공격반응	1.75(1.54)	3.17(3.27)	1.75(2.49)	1.75(1.67)	1.64	.10	.22
철수반응	5.83(3.30)	4.33(2.84)	4.13(1.96)	4.38(3.02)	.77	.05	.13
반응평가단계	wilks' Lambda		.99		.03	.00	.05
주장반응	38.17(5.34)	38.17(6.70)	36.75(4.53)	37.00(5.71)	.00	.00	.05
공격반응	30.25(5.19)	31.17(7.20)	33.88(6.92)	32.38(4.98)	.03	.00	.05
철수반응	30.67(7.96)	29.58(7.74)	30.00(4.54)	29.00(5.40)	.02	.00	.05
행동실연단계	wilks' Lambda		.72		1.71	.28	.34
주장반응	8.50(2.47)	9.92(3.48)	9.38(1.60)	8.63(2.50)	1.20	.07	.18
공격반응	7.08(2.19)	7.92(2.87)	8.38(2.50)	7.38(2.50)	5.31*	.26	.58
철수반응	8.92(2.54)	8.25(2.18)	9.13(2.17)	7.75(2.31)	.25	.02	.08
정서 및 행동^b							
우울불안	11.00(7.06)	7.25(6.61)	9.00(4.34)	11.25(4.86)	6.84*	.35	.68
미성숙	6.50(3.32)	4.83(2.86)	6.00(3.34)	5.13(1.89)	.49	.04	.10
위축	8.00(3.84)	5.33(3.60)	6.25(2.38)	6.75(2.49)	4.79*	.27	.53
비행	6.42(4.52)	3.75(2.90)	5.12(2.23)	3.88(3.27)	1.40	.10	.20
공격성	13.58(8.51)	9.50(5.62)	11.38(5.13)	12.62(8.18)	3.84 [†]	.23	.44

[†] $p < .10$ * $p < .05$ ** $p < .01$

a. ANCOVA

b. MANCOVA

c. observed power 는 경험자료에 근거한 검증력이다. 예를 들어, 통계검증력 .17은 이런 효과크기에 이런 표본 크기를 가지고 검증율(여기서의 1종오류 확률은 .05) 할 때 17%만이 유의하다고 나올 것임을 의미한다 즉, 유의하지 않게 나올 확률이 83%나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효과크기는 중간크기이므로 내용적 해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은 치료군과 통제군 모두 사전에 비해 사후에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통제군의 감소가 더 커서 집단간 차이가 관찰되었다. 반응탐색단계에서 치료군이 통제군에 비해 철수반응에 대한 탐색이 감소하였으나, 동시에 주장적 반응에 대한 탐색이 감소하고 공격적 반응을 탐색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특히, 자극 유발 상황보다는 또래집단으로의 가입이 거부당하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16)=1.16, p>.05, \eta^2=.07$. 아울러, 행동실연단계에서 공격적인 반응과 함께 주장적인 반응을 하겠다는 경향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와 행동 변화

피해집단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우울불안, 위축, 미성숙, 비행, 공격성의 사전측정치들 공변수로 하여 다변량 공분산분석을 실시했을 때, 효과크기인 η^2 는 큰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바, 각 척도별로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상담을 받은 치료군에서 우울불안, 위축, 비행 및 공격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피해집단과 관련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가해집단에 대한 연구

가해 지명 빈도

집단간 처치에 따른 가해집단의 가해 지명 빈도에서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표 5를 살펴보면, 가해지명빈도의 효과크기가 .04로 중간 크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문제해결적 집단 상담을 받은 가해청소년들이 통제군에 비해 사후에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라고 지명받은 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횟수

표 5를 보면, 집단따돌림을 한 횟수의 효과크기가 .33으로 치료군이 통제군에 비해 치료 후에 집단따돌림을 했다고 자기보고한 횟수가 증가하였다.

사회정보처리

가해집단의 경우, 사회정보처리과정에서 단서해석단계, 반응탐색단계, 반응평가단계, 행동실연단계의 사전측정치들 공변수로 하여 다변량 공분산분석을 한 결과, 효과크기인 η^2 이 단서해석단계를 제외하고는 큰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바, 각 척도별로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상담을 받은 치료군이 단서해석단계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감소하였다. 반응탐색단계에서는 공격반응을 탐색하는 경향이 사전과 사후에 비슷한 수준인 것에 비해 통제군은 공격 반응을 탐색하는 경향이 감소하여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철수반응은 치료군이 통제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반응평가단계에서는 치료군이 통제군에 비해 주장반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감소한 반면, 공격적인 반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하였다. 이를 상황별로 살펴보면, 또래집단에 가입이 거부되는 소외상황에서의 주장반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감소하였으며, $F(1, 15)=1.94, p>.05, \eta^2=.11$, 자극 유발 상황에서의 공격적인 반응에 대한 평가가 증가하였다, $F(1, 15)=2.69, p>.05, \eta^2=.15$.

행동실연단계를 살펴보면, 치료군이 통제군에 비해 문제상황에서의 주장반응과 공격반응이 함께 증가하였고, 철수반응에 대해서는 치료군은 사전, 사후에 비슷한 수준인 것에 비

표 5. 가해집단을 대상으로 사전평가를 공변수로 한 두 집단 비교

종속변인	치료(N=8)		통제(N=11)		F	partial η^2	observed power
	사전 M(SD)	사후 M(SD)	사전 M(SD)	사후 M(SD)			
가해지명 ^a	18.83(9.67)	7.99(6.60)	10.31(9.27)	8.52(6.92)	.59	.04	.11
가해횟수 ^a	.17(.41)	.63(1.19)	.00(.30)	.00(.30)	2.72	.19	.33
사회정보처리^b							
단서해석단계	<i>wilks' Lambda</i>	.95			.37	.05	.10
적의	17.88(2.99)	16.00(2.00)	16.00(3.63)	15.73(4.47)	.57	.04	.11
귀인	8.25(4.40)	7.38(4.07)	6.81(2.13)	6.36(2.34)	.31	.02	.08
반응탐색단계	<i>wilks' Lambda</i>	.69			1.77	.31	.35
주장반응	1.63(1.06)	2.62(2.67)	2.18(.98)	2.36(1.43)	.30	.02	.08
공격반응	2.25(1.83)	2.25(2.25)	1.55(1.29)	.91(1.13)	1.57	.10	.21
철수반응	5.38(3.16)	3.63(2.39)	5.09(1.58)	4.64(2.16)	.93	.06	.15
반응평가단계	<i>wilks' Lambda</i>	.49			4.11*	.51	.70
주장반응	36.50(5.29)	34.87(5.08)	39.45(4.48)	39.55(5.16)	2.94	.17	.36
공격반응	30.13(4.09)	31.25(5.44)	30.36(5.78)	28.64(6.02)	2.88	.17	.35
철수반응	32.63(5.66)	32.50(7.07)	30.09(6.04)	29.64(6.30)	.00	.00	.05
행동실연단계	<i>wilks' Lambda</i>	.64			2.26	.36	.44
주장반응	9.00(1.41)	9.63(1.69)	7.91(1.87)	8.00(1.84)	4.38 [†]	.24	.50
공격반응	7.38(2.20)	7.75(1.67)	6.36(1.63)	6.09(2.30)	1.78	.11	.24
철수반응	8.50(1.77)	8.50(1.60)	6.73(1.74)	6.55(1.57)	4.03 [†]	.22	.46
정서 및 행동^b							
우울불안	7.00(4.41)	8.00(6.07)	4.73(3.13)	3.45(2.34)	2.17	.15	.27
미성숙	3.25(1.83)	3.38(3.20)	2.73(1.79)	2.18(1.17)	.54	.04	.10
위축	4.50(2.27)	4.63(2.83)	5.09(2.55)	4.82(1.89)	.00	.00	.05
비행	4.00(2.20)	4.13(2.42)	4.27(3.32)	3.82(2.89)	1.27	.10	.18
공격성	11.25(4.89)	14.50(6.46)	12.64(5.78)	11.64(4.23)	1.85	.13	.24

[†] $p < .10$ * $p < .05$ ** $p < .01$

a. ANCOVA

b. MANCOVA

해 통제군은 감소하였다.

정서와 행동변화

가해집단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서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우울불안, 미성숙, 위축, 비행, 공격성의 사전 측정치를 공변수로 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바, 각 척도별로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제군에 비해 치료군에서 우울불안, 미성숙, 비행, 공격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논 의

집단따돌림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전부터 지속되어 온 현상이지만, 90년대 말에 들어서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왕따, 은따’ 등의 명칭으로 명명화되면서 더 가속화되고 있다. 따돌림을 당한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반인 또래집단에서 소외되어 정서적,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따돌림을 가하는 아이들은 공격적인 성향과 관련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건설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성인기의 부적응을 초래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따돌림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프로그램이나 가해와 피해의 상호의존적이고 체계적인 특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문제해결적 집단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때 피해집단

과 가해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피해집단과 가해집단을 나누어 각각의 통제군과 비교하였다. 아울러, 집단 별 사례수가 충분치 않아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표인 효과크기를 F 값과 함께 제시하고 내용적 해석을 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문제해결적 집단상담이 피해집단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나, 가해집단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우선 피해집단을 살펴보면, 치료군이 통제군에 비해 또래로부터 집단따돌림의 피해자라고 지명되는 빈도가 감소하였으며,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횟수에 대한 자기보고도 감소한 바, 문제해결적 집단상담이 집단따돌림의 피해자에게 집단따돌림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우울불안, 위축, 미성숙과 같은 내재화된 문제뿐 아니라 공격성 및 비행과 같은 외재화된 문제도 유의하게 감소하는 등 사전에 느꼈던 높은 수준의 정서적, 심리적 고통 및 행동문제가 감소되었다. 사회정보처리에서는 대인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나 전반적인 상황으로 돌려 우울감을 초래하는 귀인 양상이 감소하였다. 특히 또래 집단에 가입이 거부되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탐색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나, 이와 함께 자극유발상황 및 가입이 거부되는 소외상황에서 주장적인 반응을 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반면, 가해집단을 살펴보면 또래로부터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라고 지명되는 빈도에서는 치료군이 통제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가해 횟수에 대한 자기보고와 우울불안이나 비행, 공격성과 같은 주관적인 심리적 고통 및 문제 행동은 집단상담 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즉, 제 3자의 평가를 하여 객관적인 특성이 있는 또래지명에서는 사전에 비해 사후에 가해자라는 인식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참여한 학생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가해행동을 더 많이 보고하고 있다.

Elsa와 Smith(1998)의 연구에 따르면, 집단따돌림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실시한 후 효과를 평가했을 때 집단따돌림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어 오히려 집단따돌림과 관련된 보고를 증가시키기도 하며, 특히 간접적인 따돌림을 많이 하는 소녀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성별과 치료유무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해횟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했을 때, 치료유무, $F(1, 12)=2.72, p>.05, \eta^2=.19$, 와 성별, $F(1, 12)=.98, p>.05, \eta^2=.08$, 에서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F(1, 12)=1.19, p>.05, \eta^2=.09$ 가 관찰되고 있다. 즉, 자기보고한 가해횟수가 사전에 비해 사후에 치료군에서,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Elsa 등의 연구(1998)와 일치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후에 또래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여학생들이 잘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집단따돌림 행동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보고가 증가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또한 Smorti와 Ciucci(2000)는 자기보고를 사용하는 것이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 이전에는 단순히 괴롭힘으로 생각했던 행동을 집단따돌림으로 인식하고 회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부메랑 효과는 집단따돌림이 증가했다는 것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프로그램을 통해 가해자들의 집단따돌림 및 집단따돌림 행동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따돌림 행동으로 지각하고 이에 대한 주관적 고통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측정방법의 특성과 관련하여 가해자들이 긍정 왜곡하는 반응경향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나, 간접적인 따돌림이나 주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또래지명방법이 이러한 현상을 충분히 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집단상담에 참여한 가해자들의 참여동기와 인식이 부족하여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주관적 고통을 증가시켰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해집단의 사회정보처리와 관련해서는 치료군이 단서해석단계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적대적 의도로 해석하는 경향과 철수반응(예: 놀릴 때 고개숙이고 자리에 앉기)을 탐색하는 경향이 감소하였으며, 행동실연단계에서 주장반응(예: 놀린 친구에게 가서 자신의 생각말하기)이 증가하는 등 부분적으로 치료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격적인 반응(예: 놀린 친구를 때리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응답도 증가하는 등 치료효과에 반하는 결과도 동시에 나타났다. 피해집단에서도 주장반응과 공격반응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피해집단에서는 가입이 거부되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반응에 대한 탐색이 증가하고(예: 괴구에 끼워주지 않은 친구들에게 공을 뺏어 던지기), 가해집단에서는 자극을 유발하는 상황에서의 공격적인 반응(예: 줄에 끼어든 친구에게 욕하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단따돌림은 집단 내 역동이 중요한 현상

으로 프로그램 중에도 미묘한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는 Dishion, McCord 및 Poulin(1999)이 언급한 'deviancy training'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보인다. 'deviancy training'이란 비행의 가능성이 높거나 우울하면서 파괴적인 행동장애가 있는 고위험군의 초기 청소년의 경우, 치료의 한 형태로 또래집단을 했을 때 서로 공격적이거나 일탈된 말이나 행동을 웃음 등으로 강화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또래집단을 했을 때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집단따돌림에 관여된 학생들도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학생들로 집단 내에서 공격적으로 주고받는 말이나 행동에 대한 미묘한 강화가 집단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러한 측면은 프로그램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집단운영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이를 통제할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첫째, 연구 집단의 특성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 점은 본 연구의 의의이기도 하지만 집단상담의 실시와 연구결과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함으로써 가외변인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집단간 역동을 충분히 다루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프로그램의 실시 기간이 짧아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대처방법을 습득하여 행동까지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요청되며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집단상담의 효과추정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집단따돌림 현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또래 평가와 아동의 자기보고는 실시하였으나, 교사 및 부모의 평가를 얻지 못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연구결과(2000)에 따르면, 학생들의 정신병리 현상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교사라고 한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실제 아동들이 학급에서 어떤 행동의 변화를 보이느냐를 교사 타당화할 수 있는 교사의 평가와 함께 아동이 학교에서 보이는 대인관계 양상과 적응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척도들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집단따돌림 가해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집단상담에 4회기 이상 참여하지 않은 4명이 모두 가해자라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집단따돌림의 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상담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며 현실적으로 자신의 의지가 아닌 교사의 강압에 의해 오는 경우가 많다. 집단상담에 대한 동기의 부족은 프로그램의 진행과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수행평가 시 집단상담 참여에 따른 가산점을 부과하거나 교사가 관심을 더 기울여 가해자의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칭찬하는 등 학급 활동에서 현실적인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과 프로그램의 부분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도하였으며 그 효과를 검증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집단따돌림은 집단 내에서 즉 학급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가해자만이 혹은 피해

자만이 개인적으로 변화해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제상황을 해결해 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집단상담에서 가해자는 힘에 대한 욕구를 집단 안에서 리더 역할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집단 안에서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자기 주장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힘의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한다면, 이를 실제 현장인 학급에서 적용할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를 토대로 집단따돌림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집단상담의 개발 및 효과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주) 가우디 (1999). 왕따리포트. 우리교육. 서울.
- 고혜영 (2000). 집단따돌림 피해중학생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구본용 (1997). 청소년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영신, 고윤주, 노주선 (2000). 한국형 변형 또래지명 설문지 개발에 관한 연구: 집단따돌림 및 또래 괴롭힘 측정도구 (미간행).
- 백혜정, 이순목 (2004). 세 집단간의 비교를 통하여 본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덕지향에 대한 연구: Kohlberg의 도덕발달단계 및 도덕지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79-94.
- 보건복지부 (2000). 중학생의 집단따돌림 현상의 정신병리학적 연구.
- 오경자, 홍강의, 이혜련 (1997). K-YSR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원혜 (1998). 비행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과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재영 (1999).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따돌림을 당한 중학생의 사회성숙도 및 성격특성에 미치는 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옥임 (2001). 또래 따돌림에서 가해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종철, 김인경 (2000).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03-114.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sher, S. R. (1990). Recent advances in the study of peer rejection, In Steven R. Asher & John D. Coie (ed).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Baldry, A. C., & Farrington, D. P. (2004). Evaluation of an intervention program for the reduction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hools. *Aggressive Behavior*, 30. 1-15.
- Cohen, J. (1977).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rev. ed.)*. NY: Academic Press).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Dishion, T. J., McCord, J., & Poulin, F. (1999). When intervention harm; Peer groups and problem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54(9), 755-764.
- Dodge, K. A. (2001). The science of youth violence prevention: Progressing from developmental epidemiology to efficacy to effectiveness to public polic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on Medicine* 20, 63-70.
- Elsa, M. & Smith, P. K. (1998). The long-term effectiveness of anti-bullying work in primary schools. *Educational Research*, 40(2), 203-218.
- Graham, S., & Juvonen, J. (1998). Self-blame and victimization in middle school: An attribut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294-314.
- Huck, S. W., & McLean, R. A. (1975). Using a Repeated Measures ANOVA to Analyze the Data from a Pretest-Posttest Design: A potentially confusing task. *Psychological Bulletin*, 82, 511-518.
- Hymel, S., Bowker, A., & Woody, E. (1993). Aggressive versus withdrawn unpopular children: Variations in peer and self-perceptions in multiple domains. *Child Development*, 64, 879-896.
- Keppel, G. (1991). *Design and Analysis: A researcher's handbook*.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Lochman, J. E. (1987). Self and peer perceptions and attributional biases of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boys in dyadic interaction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404-410.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Blackwell.
-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5-1190.
- Pepler D.J., Rubin K.H., editors. (1991).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J: Lawrence Elbaum.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07-814.
- Pierce, K. A., & Cohen, R. (1995).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Toward a contex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hildren's aggressor-victim relationships. *Developmental review*, 15, 292-310.
- Quiggle, N., Garber, J., Panak, W., & Dodge, K. A. (1992).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aggressive and depress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1305-1320.
- Schwartz, D. (2000). Subtypes of victims and aggressors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2), 181-192.
- Smith, P.K., & Sharp S. (1994). *School bullying: Insights and perspectives*. London: Routledge.
- Smorti, A., & Ciucci, E. (2000). Narrative strategies in bullies and victims in Italian schools. *Aggressive Behavior*, 26, 33-48.
- Spivack, G., Platt, J. J., & Shure, M. B. (1976). *The problem-solving approach to adjustment: A*

guide to research and intervention. Washington:
Jossey-Bass.

원고접수일 : 2005. 11. 10

게재결정일 : 2006. 10. 2

Winkel, F. W., & Baldry, A. C. (1997). An application of the Scared Straight principle in early intervention programming: Three studies on activating the other's perspective in pre-adolescents' perceptions of a stepping-stone behaviour. *Issues in Criminological and Legal Psychology*, 26, 3-15.

K C I

The effect of problem-solving group therapy for bullies and victims of bullying

Young-Sun Lee

Jung-Hye Kwon

Soon-Mook Lee

Korea University

Sungkunk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problem-solving group therapy for bullies and victims. Eight bullies and twelve victims were selected as an experimental group through K-MPNI, and eleven bullies and eight victims in the waiting list group were used as a control group. The problem-solving group therapy consisted of eight sessions. The first step was to build an emotional and physical relationship with bullies and victims, to recognize the negative effects of bullying through an exclusion experience, and to create self-awareness of the students' interpersonal patterns. The focus of middle step was to train the steps of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skills, while each subject was expected to think about how to cope with bullying as a defender. The last part of the program was to practice it in real-life and to train a communication skills.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divided into two groups. In victim group, the frequency nominated by peers for being bullied and the victimization frequency reported by self were decreased. Indeed, their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were reduced. Both assertive and aggressive response to bullying situation were increased. In bullying group, the frequency nominated by peers for bullying was decreased. In contrast, the bullying frequency reported by self and their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were increased. Both assertive and aggressive response to bullying situation were increased. In conclusion, the clin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also the further study were suggested.

Keywords : Bullying, victimization, Peer nomination, Problem-solving,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